



“생활체육의 앞날 비춰주세요”
표어·포스터 공모...9월29일까지 접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이하여 스포츠7330 생활체육 캠페인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자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 생활체육 참여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체육 100년, 전 국민 건강자킴이로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표어·포스터 공모전은 100년을 맞은 대한민국 체육을 돌아볼과 동시에 앞으로 생활체육이 국민 건강에 기여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공모하고자 기획했다.

표어 부문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다. 포스터 부문은 만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어린이·청소년부, 만 19세 이상은 일반부로 참가할 수 있다.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온 체육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29일까지.

주요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현상성, 독창성, 완성도' 등이다. 표어 부문 수상자는 일반부와 청소년부 구분 없이 24명이며, 포스터 부문 수상자는 어린이·청소년부 및 일반부 각 17명씩 34명이다. 최종 수상자(총 58명)는 11월 중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와 개별 이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포스터 부문 일반부 대상 수상자(1명)에게 주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200만원을 포함해 총 상금 600만원 및 3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대한체육회장상 등이 준비되어 있다.

'스포츠7330'은 '일주일에 세 번,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생활체육 캠페인으로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생활체육 참여 표어·포스터 공모전 온라인 접수페이지(www.contest-sports7330.com)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PGA 첫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7일 티샷

최다승 도전 우즈, '파워랭킹 20인 밖' 골욕

우즈, PGA 통산 82승...공동 1위 챔피언십서 4차례 우승 좋은 기억 냉정한 평가 넘고 포효할 지 주목

2019~2020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이 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TPC 하당파크(파70)에서 펼쳐진다. 총상금 1100만 달러(131억3000만 원), 우승상금 198만 달러(23억6000만 원)가 걸려있다. '돈 잔치'로 불렸던 직전 대회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션얼보다 상급 규모가 크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션얼 우승으로 2년 4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한 저스틴 토마스(27·미국)는 2연승과 함

께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PGA 챔피언십 우승을 노린다. 2018년부터 2년 연속 챔피언에 올랐던 브룩스 켈카(30·미국)는 1956년 피터 톱슨 이후 64년 만에 통산 3번째 메이저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둘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이가 3주 만에 필드에 복귀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다.

지난달 20일 끝난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통해 약 5개월 만에 공식 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우즈는 힘겹게 컷을 통과한 뒤 최종 합계 6오버파 294타 공동 40위에 머물렀다. 라운드 직후 "나이 드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던 우즈는 대회가 끝난 뒤 "4라운드를 완주한 데 대해 만족한다. 잘 하지는 못했지만 샷 감각이 그런대로 괜찮았다"며 나름대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우즈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열린 조



타이거 우즈

조 챔피언십에서 통산 82번째 PGA 투어 우승을 하며 샘 스니드(미국·2002년 사망)가 1965년 작성한 PGA 투어 역대 최다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제 1승만 추가하면 PGA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1999년과 2000년, 2006년, 2007년 등 4차례에 걸쳐 PGA 챔피언십 정상에 섰던 좋은 추억도 갖고 있어 통산 최다승과 메이저 16승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 메모리얼 토너먼트 이후 3M 오픈과 WGC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션얼을 건너뛴 채 일찌감치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준비해 온 이유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 탓인지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CBS스포츠는 4일 우즈

의 우승 여부를 이번 대회에서 지켜볼까 할 가장 큰 관심사로 꼽았지만, '숏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컷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곁들였다.

ESPN은 17명의 우승 후보군을 언급하며 우즈를 우승 후보군이 아닌 다크호스군으로 분류했고, PGA 투어 홈페이지는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파워랭킹 20인 명단에서 우즈를 아예 제외했다.

PGA 챔피언십에서 통산 4차례 우승한 우즈는 지난 2년 간 이 대회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2018년 대회에선 켈카에 이어 단독 2위에 랭크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컷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나이 드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는 골프 황제는 주변의 냉정한 평가를 뒤집으며 또다시 한번 포효할 수 있을까.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막을데엔 막아봐” 오를라호마시티의 사이 길저스-알렉산더(오른쪽)가 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디즈니월드 내 디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9~2020 NBA 재개 시즌 덴버 너기츠전에서 메이슬 플럼리(7번)의 수비를 피해 골밑 득점을 시도하고 있다. 덴버는 30점·12리바운드·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니콜라 요키치와 37점을 올린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앞세워 121-113으로 이겼다. 올랜도(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최속현범’ 국회 통과...체육계 인권 강화된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속현범'을 통과시켰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법슬레이 국가대표 총감독 출신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전 국가대표 최속현 선수 사망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자·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

한 강화 등 체육계의 인권보호 시책과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인권 보호'와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등을 추가해 실질 위주의 체육계 폐단을 방지하고자 했다. 선수와 소속팀이 공정한 계약을 맺고 스포츠 비리조사에 비협조하면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진술·증언방해 금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공간 분리, 매년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도 담겼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악플·욕설 때문에 힘들다...이제 그만 애썼으면”

고유민 생전 마지막 인터뷰 공개 스포츠뉴스도 댓글 개선 등 추진



그만 애썼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강할 것이다.’ 스포츠선수에게 흔히 따라붙는 인식이 있다. 일반인에 비해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십수년간 펼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편견이다. 일반인보다 심신이 강할지언정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매일 같이 받는 상황을 견디기는 어렵다. 7월의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난 고유민이 털어놓은 마지막 속내에도 이러한 고충이 담겨있다.

종합 스포츠미디어 ‘스포카도’는 3일 유튜브 ‘해비멘탈’ 프로그램을 통해 고(故) 고유민의 생전 인터뷰를 공개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2주 전 촬영된 영상으로, 비극 이후 영상을 폐기할 생각이었으나 유가족의 동의로 세상에 알려졌다. 스포카도 관계자는 “영상 공개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다. 유족측에서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선수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고 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약 17분의 영상에서 고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2013~2014시즌을 앞두고 레프트로 현대건설에 입단해 프로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나 2019~2020시즌 팀 사정상 갑작스레 리베어로 포지션을 옮기며 문제가 불거졌다. 배구 인생 내내 해본 적 없는 포지션. 부진이 거듭되자 기사에 악플이 달리는 것은 물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쇄도했

다. 고인은 인터뷰 내내 “힘들다. 이제 그만 애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순한 프로 선수들이 악플로 병들고 있다. 병적인 집착으로 악플을 달아온 댓글러 중 일부는 팬들 사이 유명인사가 되기도 했다. 국내 최대 스포츠에이전시인 리코스포츠와 플레이아데스는 3일 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정 선수 및 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공개적인 댓글은 형법 제307조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되며, 가해자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도 나섰다. KOVO는 “포털사등 기사 댓글 기능 개선 요청 및 선수단 대상 심리치료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연예인들의 거둬들인 극단적 선택, 포털사이트 연에 섹션에는 댓글창이 막혀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는 여전히 악플의 위협에 노출돼있다. 선수도 사람이다. 특별히 강한 것은 아니다. 최익근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3일)

순위	팀	경기 수	득 점	승	패	무	승률	경기 연승	타율	방어율	홈런	득점	실점	실점률	도루	실책
1	N C	45	24	2	0.652	-	2	0.290	4.62	0.686	451	350	102	50	38	
2	키움	75	44	31	0.587	4.0	6	0.274	4.64	0.667	434	372	82	55	51	
3	두산	73	42	31	0.575	5.0	2	0.302	5.03	0.543	445	406	69	43	46	
4	L G	73	40	32	0.556	6.5	1	0.286	4.64	0.500	426	371	74	44	38	
5	K I A	70	38	32	0.543	7.5	2	0.275	4.27	0.647	346	321	69	19	50	
6	K T	71	37	33	0.529	8.5	5	0.293	5.10	0.605	415	377	89	50	46	
7	롯데	70	35	35	0.500	10.5	2	0.275	4.71	0.636	353	357	58	50	35	
8	삼성	73	35	38	0.479	12.0	3	0.271	4.76	0.537	379	386	66	70	51	
9	S K	74	24	49	0.329	23.0	5	0.244	5.45	0.378	294	427	70	40	49	
10	한화	74	19	54	0.260	28.0	1	0.237	5.45	0.285	260	436	39	35	63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수	타율	출판	상진	4사	피타율	WHIP		
1	구창모	N C	1.55	13	87.0	17	15	9	0	54	6	99	17	0.178	0.82	
2	스트래일라	롯데	1.95	16	101.2	27	22	5	3	0	72	5	107	28	0.199	0.95
3	요키시	키움	2.25	16	100.0	32	25	9	3	0	88	6	84	18	0.234	1.03
4	루친스키	N C	2.36	15	95.1	27	25	10	1	0	80	7	88	34	0.225	1.15
5	브룩스	K I A	2.42	15	96.2	27	26	6	3	0	88	3	76	22	0.246	1.12
6	알칸타라	두산	2.79	16	103.1	34	32	10	1	0	96	8	92	21	0.244	1.08
7	임찬규	L G	3.57	13	75.2	34	30	7	3	0	72	6	70	27	0.247	1.26
8	문승원	S K	3.74	15	89.0	41	37	2	7	0	83	9	75	26	0.245	1.18
9	가	농 K I A	3.91	14	78.1	40	34	6	4	0	72	2	77	33	0.244	1.29
10	라이트	N C	4.08	15	81.2	38	37	6	3	0	80	7	66	42	0.259	1.43
11	류캐년	삼성	4.15	15	95.1	47	44	6	0	98	10	60	31	0.271	1.30	
12	맥케이넬	K T	4.20	17	105.0	51	49	8	5	0	114	9	83	34	0.279	1.35

※ 피타율 : 안타+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이닝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출판	타점	타점	도루	4사	상진	실책	득점률	OPS
1	허정민	두산	0.390	55	210	82	4	32	32	9	18	13	6	0.519	0.938
2	로하스	K T	0.389	71	283	110	26	65	68	0	30	69	3	0.357	1.206
3	이정후	키움	0.363	75	292	106	12	52	63	6	33	23	0	0.393	1.034
4	페르난데스	두산	0.361	73	299	108	14	61	57	0	37	23	0	0.342	0.988
5	손아섭	롯데	0.352	70	270	95	4	54	42	3	38	32	1	0.373	0.903
6	김현수	L G	0.346	73	295	102	14	56	63	0	28	27	0	0.477	0.972
7	오재일	두산	0.345	59	232	80	7	32	41	0	21	42	1	0.403	0.915
8	강진성	N C	0.341	66	232	79	11	39	51	5	16	27	3	0.391	0.929
9	배정재	K T	0.339	61	269	90	8	43	35	13	29	70	2	0.308	0.910
10	조중호	K T	0.330	65	197	65	0	42	16	8	32	37	0	0.408	0.793
11	김상수	삼성	0.328	70	247	81	3	48	25	8	46	34	5	0.347	0.872
12	박민우	N C	0.321	66	249	80	3	44	27	8	22	23	3	0.426	0.812
13	최형우	K I A	0.313	68	246	77	10	42	46	0	40	45	0	0.342	0.898
14	황재호	K T	0.309	61	249	77	10	49	41	4	20	41	5	0.273	0.864
15	이대호	롯데	0.309	70	262	81	11	33	53	0	34	31	0	0.346	0.885
16	라모스	L G	0.308	67	247	76	19	38	47	0	32	70	2	0.298	0.969
17	박성민	N C	0.304	65	191	58	10	37	37	0	42	31	11	0.346	0.916
18	나성범	N C	0.303	66	271	82	18	55	56	0	32	88	0	0.311	0.958
19	박건우	두산	0.302	67	258	78	6	58	38	4	32	36	1	0.317	0.834
20	터커	K I A	0.301	70	269	81	16	47	56	0	39	33	1	0.338	0.948
21	양의준	N C	0.300	59	200	60	10	33	50	2	27	23	1	0.404	0.898
22	이명기	N C	0.300	67	230	69	1	38	21	5	18	40	1	0.241	0.705
23	강백호	K T	0.299	56	214	64	12	42	40	2	28	44	1	0.222	0.909
24	나지람	K I A	0.297	67	239	71	10	40	46	0	35	48	0	0.369	0.848
25	백현민	삼성	0.295	62	220	65	5	36	24	12	13	38	0	0.289	0.758
26	마차도	롯데	0.295	70	251	74	6	36	43	7	26	33	3	0.328	0.789
27	김지현	키움	0.292	73	277	81	17	71	59	11	52	34	10	0.305	0.928
28	알타이	N C	0.292	70	25										